



# 봉침요법 강좌(蜂針療法講座)



회장 고상기(高相基)

한국봉료보건연구회

국제봉료보건학술연구회 부회장

- 지난호에 이어서 -

## 제4장 의료분야(醫療分野)에서의 봉독(蜂毒)의 응용(應用)

100여년 이래로 봉독은 일종의 천연적인 항생물질로서 의사, 약사, 화학자, 약리학자들과 아울러 관련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임상에서의 응용과 실험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발표된 문헌을 보면 봉독이 인류의 여러 질병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다만 의료분야에서 봉독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허용가치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요망되고 있다.

### 제1절 봉독(蜂毒)의 임상효능(臨床效能)

#### 1. 결체조직(結締組織) 질환

##### (2) 유폵습성 관절염(類風濕性關節炎)

유폵습성(類風濕性) 관절염은 또한 위축성 관절염, 기형성 관절염으로도 불리며 일종의 전신 다발적인 만성관절염이다. 그 주요 병변은 관절 및 주위조직의 염증과 위축이며, 이로 인해 관절에 변형과 강직을 가져온다. 아르테모프는 1964년 일찍이 봉독을 사용하여 이 질환을 지닌 310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이와는 별도로 112명에게는 호르몬제를 사용하였고, 59명에게는 살리실산나트륨으로 치료하면서 서로 비교, 관찰하였다. 그 치료효과는 표 26과 같다. 봉독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치료의 효과는 리실산나트륨에 의한 치료효과보다 아주 뛰어났고, 다섯 실험군 가운데 봉독과 호르몬제를 함께 사용한 실험군이 그 치료효과가 가장 높았는데, 호르몬제만을 사용한 치료의 경우는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지만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물의 복용을 중지하면 짧은 기간 내에 바로 병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호르몬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각종의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예도 많았다. 이로 인해 호르몬제는 결코 유폵습성(類風濕性)관절염을 치료하는 이상적인 약물이 될 수 없음



이 밝혀졌고, 단지 급성발작으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이 뚜렷하거나 전신적인 증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만 봉독이나 기타 치료법과 함께 사용하여 신속하게 증상을 제어하는데 쓰일 수는 있다고 여겨졌다.

봉독으로 류풍습성(類風濕性)관절염을 치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6~8주를 한 단계의 치료과정으로 한다. 봉독은 호르몬제에 비해 치료효과가 더디게 나타나서 초기단계에는 치료효과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지만 점차 그 치료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봉독의 사용을 멈춘 후 4~6개월, 심지어는 1~2년 내에도 치료효과가 결코 떨어지지 않게 되며, 3~5년 내에 봉독을 다시 사용해도 절대 호르몬제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봉독을 사용한 치료과정을 거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후 1~5년 사이의 치료효과를 살펴본 결과 봉독의 장기적인 치료효과는 호르몬제나 살리실산나트륨에 의한 장기적인 치료효과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27 참조)

표 26 봉독을 사용한 류풍습성(類風濕性)관절염 환자 치료과정에서의 치료효과

치료방법	치료환자수	동통의 경감	동통 소실	관절종창 경감	체온저하	혈액침전이 호전	치료효과 무
봉독주사	210	134 (63.7%)	47 (22.5%)	180 (85.5%)	143 (67.5%)	131 (62.3%)	29 (13.8%)
봉침	100	69 (69.0%)	28 (28.0%)	85 (85.0%)	70 (70.0%)	43 (43.0%)	3 (3.0%)
봉독 +피질호르몬	100	60 (60.0%)	38 (38.0%)	98 (98.0%)	81 (81.0%)	78 (78.0%)	2 (2.0%)
피질호르몬 또는 ACTH	112	69 (61.1%)	40 (36.0%)	96 (85.8%)	77 (69.0%)	71 (63.3%)	3 (2.9%)
살리실산 나트륨	59	59 (48.0%)	-	15 (25.0%)	18 (30.0%)	13 (22.0%)	31 (53.0%)

표 27 봉독으로 류풍습성(類風濕性)관절염 환자를 치료한 장기간의 치료효과

치료방법	치료환자수	1~5년 후의 치료효과		
		양호	만족	무효
봉독주사 또는 봉침	300	168 (56.0%)	96 (32.0%)	36 (12.0%)
피질호르몬	82	14 (17.0%)	17 (20.0%)	51 (62.0%)
살리실산나트륨제제	59	11 (18.6%)	15 (25.4%)	33 (56.0%)

중국의 가걸(賈杰) 등은 1993년에 봉독주사를 통해 관절염 환자 76명을 치료했는데 그 중 류풍습성(類風濕性)관절염 환자 50명에 있어서는 관절병변의 수가 144개였고 류마티스성관절염 환자 26명에 있어서는 관절병변의 수가 69개였다. 정제된 봉독주사액을 한 차례에 2ml씩 둔부에 근육주사 하였는데 하루에 한 차례씩 연속으로 10~20차례를(최다 30회) 한 단계의 치료과정으로 삼았다. 그 결과, 병변이 있는 관절의 수가 줄어드는 비율이 류풍습성(類風濕性)관절염의 경우 88.9%(128/144)에 달했고, 류마티스성관절염의 경우는 89.9%(62/69)에 달했으며, 그 동통, 종창, 발적(發赤) 등의 증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특히 동통의 약화가 가장



뚜렷했다(92%~95%). 치료 후 류풍습성(類風濕性)관절염의 RF(류풍습(類風濕 인자)와 ANA(항핵항체(抗核抗體))가 음성으로 변화되는 수가 각각 35례에서 18례로, 21례에서 7례로 줄어들었고, ESR(혈액침전)의 경우는 86.4mm/h에서 60.3mm/h로 낮아졌으며, CH50과 C3는 높아졌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에서의 ESR은 78.9mm/h에서 32.0mm/h로 낮아졌으며 (표 28 참조), 치료 후 병변의 활동이 안정상태로 변화되었다.

표 28 정제봉독주사액으로 치료한 전후의 실험실 지표의 변화

질병군	환자수	RF	ANA	CH50( $\mu$ /ml) *	C3(mg/ml) **	ESR(mm/h)
류풍습성관절염	50	35/18	21/7	40 $\pm$ 5.2/61 $\pm$ 0.3	0.7 $\pm$ 0.1/0.9 $\pm$ 0.2	86.4/60.3
류마티스성관절염	26	4/4	5/4	50 $\pm$ 1.8/52.5 $\pm$ 5.3	0.8 $\pm$ 0.1/0.8 $\pm$ 0.1	78.9/32.0

주: 정상치\*는 50~100 $\mu$ /ml를 표시, \*\*는 0.75~1.5mg/ml를 표시함.

중국의 엄서병(嚴序炳) 등은 1995년 봉독주사액을 응용하여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류풍습성(類風濕性)관절염 환자 86명을 치료했는데, 매일 근육주사로 2ml(0.5g 함유)씩 주사하면서 1개월을 한 단계의 치료과정으로 삼았고, 치료기간 중에는 기타 약물 및 비약물성요법을 중지하였다. 대조군인 20명에 대해서는 뇌공등편(雷公等片)을 사용했다. 그 결과 치료군과 대조군의 총유효율은 각각 77.9%와 55%로 나타나 치료군의 치료효과가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 그 후 5개월 동안 지속적인 관찰을 시행한 치료군 중의 32례(류마티스성 24례, 류풍습성 8례)에서는 재발한 경우가 6례(류마티스성 2례, 류풍습성 4례)로서 18.7%를 접했고, 대조군 11례(류마티스성 4례, 류풍습성 7례) 중에서는 재발한 경우가 5례(류마티스성 1례, 류풍습성 4례)로서 45.4%에 달했다. 두 군을 비교해 볼 때 대조군의 재발률이 치료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5)

엄서병(嚴序炳) 등은 혈액에 있어서의 여러 참고수치를 관찰했는데, 혈액침전은 치료군(68례)에서 치료 전후 각각 23.6mm/h $\pm$ 12.9mm/h, 21.2mm/h $\pm$ 11.7mm/h(P<0.05)로 나타났고, 대조군(20례)에서는 치료 전후 각각 24.1mm/h $\pm$ 11.5mm/h, 23.6mm/h $\pm$ 12.0mm/h(p>0.05)로 나타났다. 혈전소(정상치: 99pg/ml $\pm$ 0.96pg/ml)는 치료군(36례)에서 치료 전후 각각 125pg/ml $\pm$ 23.1pg/ml, 101pg/ml $\pm$ 11.2pg/ml(P<0.05)로 나타났고, 대조군(16례)에서는 치료 전후 각각 122pg/ml $\pm$ 22.8pg/ml, 113pg/ml $\pm$ 14.8pg/ml(p>0.05)로 나타났다. 점단백(粘 蛋白)이 내려가는 율은 치료군에서 67.9%(19/28), 대조군에서 58.4%(7/12)로 나타났다. 항체사슬 'O'의 음성전화율은 치료군에서 71.4%(20/28), 대조군에서 58.4%(7/12)로 나타났다. 류풍습 인자의 음성전화율은 치료군에서 77.3%(17/22), 대조군에서 66.9%(8/12)로 나타났다. 상술한 지표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치료군의 치료효과가 대조군보다 높았음을 볼 수 있다.

### (3) 홍반성 낭창(紅斑性囊瘡)과 경피증(硬皮症)

전신성 홍반성 낭창은 일종의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서, 이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완만하게 시작되어 체력저하, 식욕부진, 발열, 체중저하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난다. 이어 각 기관과 조직에 피로가 누적되어 증상의 발작과 완화가 반복되면서 전신적인 체내 손상을 일으킨다.

1959년 중국의 산서의학원(山西醫學院) 부속의원의 피부과에서는 일찍이 봉독요법으로 아급



성 홍반성 낭창 환자 1명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바 있다. 이 환자는 30세의 여성으로서 입원 전 손등에 콩알만 한 크기의 붉은 반점이 곳곳에 생겼고, 이후 지속적으로 양쪽 대퇴 외측에 많은 붉은 반점이 생겼으며, 양쪽 뺨과 코 부위에도 붉은 반점이 나타나 아급성 홍반성 낭창으로 진단되었다. 입원 후 비타민과 간정(肝精)을 투약하는 것 외에 주로 봉독주사액을 통한 치료를 하였는데, 초기 단계에는 매일 봉독 1개 단위(0.1ml에 봉독 1개 단위량의 봉독이 함유됨)를 피하에 주사했고, 9일 째가 되어서는 매일 2개 단위로 늘렸다. 이 때에 이르러서는 붉은 반점이 신속하게 소멸되기 시작했다. 10일 후에는 봉독의 제량을 10개 단위로 늘려 지속적으로 10일 동안 치료했는데, 피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등 제반 증상이 치유되어 퇴원하게 되었다.

역시 중국의 하경(何勁) 등도 1996년에 봉독으로 홍반성 낭창을 치료한 예를 발표했다. 경피증은 국부성과 전신성의 두 종류로 나뉜다. 전자는 병변이 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후자는 피부가 경화되면서 겹하여 내장병변이 나타나는 일종의 전신성 질환이다. 이 질환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인데, 그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 질환에 봉독이 치료효과가 있음이 보고 되어 왔다. 1996년 중국 하북성(河北省) 석가장(石家莊)에서 개최된 봉료회의에서 정개명(鄭凱鳴)은 봉침을 사용하여 경피증 환자 2명을 치료한 예를 보고했다. 그 개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 1: 이모, 여자, 25세, 1995년 11월 3일 내원. 경피증과 기관지천식을 20여 년 동안 앓아 왔으며, 이로 인해 양쪽 발이 무겁고 조금만 멀리 걸어가도 호흡곤란과 함께 얼굴색이 어두워지면서 말에 힘이 없어지곤 했다. 허리 좌측에 100mm×100mm 크기의 자색으로 굳어진 피부가 있었고, 이 부위의 피부는 색이 밝으면서 손가락으로 꼬집어 올릴 수 없었으며, 피부감각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 양쪽 사타구니의 근육도 위축되어 자홍색을 띠고 있었고, 양쪽 다리의 활동도 제한적이여서 들어올리거나 앞으로 뺄지 못했고, 사지가 차가우면서 힘이 없었다.

류풍습(類風濕) 인자 양성으로서 일찍이 다른 큰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에 봉침을 시술하기 시작하여 일정한 적응기간을 거친 후 매일 봉침치료를 시행하면서 아울러 로dif젤리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치료를 시작한 지 56일이 지나자 환자의 정신적인 면이 크게 개선되면서 얼굴색이 좋아졌고, 굳었던 부위의 피부가 연해져 손으로 꼬집어 올릴 수 있었으며, 피부색도 정상적인 색깔에 가깝게 되었다. 또한 통증감각도 전에 비해 민감해졌고, 피부의 온도도 상승했으며, 양쪽 다리의 활동도 자연스러워졌다. 정신도 맑아져 수면상태가 좋아졌다. 3개 단위의 치료과정을 거치면서 731마리의 벌이 사용되었고, 경피증이 나타났던 부위의 피부가 색이 옅어지면서 연해져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예 2: 허모, 남자, 44세, 1994년 1월 21일 내원. 1987년 초 양쪽 무릎과 손이 강직되기 시작했는데, 매일 새벽마다 양쪽 손의 강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허리에는 80mm×80mm 크기의 자홍색으로 위축된 경결부위가 있었고, 허리 우측 부위에는 400mm×100mm 크기의 띠모양으로 피부가 자색으로 굳어져 있었다. 이에 다른 병원에서 국부성 경피증으로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환자는 봉침으로 치료받기를 원했고, 399일 동안 봉침을 시술하면서 3,803마리의 벌이 사용되었으며, 아울러 로dif젤리도 복용하도록 하였다. 치료 후 환자는 얼굴에 붉그스레하게 윤기가 나면서 정신상태가 양호해졌고, 경피증이 나타난 부위의 피부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